

홈플러스, 몸집 줄이기 나서... 37개 매장 영업 잠정중단

핵심 점포 중심 고강도 체질개선
수정 회생계획안 법원 제출 예정
azon 사업부문 추가 M&A 담야



지난 8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홈플러스 매장 입구에 임시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전체 대형마트 점포의 약 36%에 달하는 37개 매장의 영업을 잠정 중단하며 사실상 '슬립화 전략'에 돌입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계약 체결 이후에도 유동성 압박이 해소되지 않자, 핵심 점포에 자원을 집중해 생존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고육책이다.

홈플러스는 10일부터 7월 3일까지 전국 104개 점포 중 37개 점포의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영업을 중단하는 매장은 ▲서울 중계·신내·면목·잠실점 ▲경기 킨텍스·고양·안양·포천송우·남양주진점·경기하남·부천소사·분당오리·동수원점 ▲인천 가좌·인천송의·인천연수·인천송도·인천논현점 ▲부산 센텀시티·부산반여·영도·서부산점 ▲경남 밀양·진주·삼천포·마산·진해·김해점 ▲대구 상인점 ▲경북 경산·포항·죽도·구미점 ▲충남 계룡점 ▲전북 익산·김제점 ▲전남 목포·순천·풍덕점이다. 이번 조치는 매출 기여도가 낮

고 최근 상품 수급 차질로 인해 고객이 탈이 심화된 곳을 중심으로 결정됐다.

회사는 영업을 지속하는 67개 핵심 점포에 제한된 상품 물량과 판촉 역량을 몰아주어 수익성을 회복할 계획이다. 영업 중단 점포의 직원들에게는 평균 임금의 70% 수준인 휴업 수당이 지급되며, 희망자에 한해 운영 점포로의 전환 배치도 병행한다. 다만 대형마트 영업만 멈출 뿐, 해당 건물 내 입점한 소상공인 매장들은 정상 운영을 이어간다.

자금난 해결을 위한 행보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최근 NS쇼핑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계약을

1206억 원에 체결했으나, 대금 유입 시점까지의 운영 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이에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단기자금 대출인 브릿지론과 회생 완료 시까지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DIP(Debtor-in-Possession, 회생기업 운용자금) 대출 지원을 요청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의 DIP 3000억원 조달 계획이 1000억원 수준을 수월하게 넘기면서, 다시금 임금이 다시 밀리기도 했다.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법원 앞 기자회견을 통해 DIP 대출이 실행될 경우 기존 채권자들의 변제 순위가 뒤로 밀려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추가 금융 지원이 일반 투자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라고 주장한다.

반면 홈플러스 일반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생존권까지 포기하며 회생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대주단인 메리츠 등 금융권도 그에 걸맞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회생 기간 중 운영 동력을 잃지 않도록 DIP 자금을 즉시 투입하고 향후 성공적인 매각을 위한 가교 역할로서 브릿지 대출을 신속한 결정 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조만간 점포 효율화와 자존 사업 부문에 대한 추가 M&A 방안을 담은 수정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홈플러스 측은 "운영자금 지원을 통해 영업을 유지하며 사업양도나 M&A를 추진하는 방식이 청산보다 채권 변제율이 높은 사례가 많다"며 "회생절차가 중단될 경우 고용 불안과 협력업체 피해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쿠팡·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제품 연중 기획전

친환경 소비 접근성 강화

쿠팡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력해 정부 인증 녹색제품을 대상으로 한 연중 기획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녹색제품의 온라인 유통 확대와 친환경 소비 접근성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사업의 일환이다.

기획전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인증한 녹색제품 중심으로 구성됐다. 녹색제품은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제품이다.

쿠팡은 '쿠팡 착한상점' 내 별도 기획관을 마련해 소비자가 인증 제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 제품은 모두 로켓배송으로 제공된다.

기획전에는 친환경 성분을 적용한 주방·생활용품, 절수형 샤워기, 에너지 효율형 음식물처리기, 재활용 원료를 활용한 화장지 및 위생용품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식품, 바디케어, 방향·탈취용품, 건강·의료용품, 사무용품, 보드게임 등 다양한 생활용품군의 녹색제품을 판매한다.

/김서현 기자

유통업계 1분기 실적

동원그룹, B2B 중심 실적방어 성공... "안정적 성장 주력"

동원산업 영업익 1462억... 17% ↑
물류 등 포트폴리오 다변화 성과



동원그룹 본사 전경.

동원그룹이 올해 1분기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 내수 부진 등 복합 악재 속에서도 B2B 사업과 수출 확대를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동원그룹 사업 지주사인 동원산업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2조 5300억 원, 영업이익은 17.1% 늘어난 1462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수산·식품 부문은 고환율과 글로벌 원자재 수급 불안, 소비 위축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다소 둔화됐지만, 포장재·물류 등 B2B 중심 계열사들이 신

규 수주와 해외 시장 확대를 통해 실적 방어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된다.

별도 기준 동원산업은 매출액 2958억 원, 영업이익 666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각각 전년 대비 7.8%, 35.7%

감소한 수치다.

식품 계열사 동원F&B는 온라인 판매 채널 성장에 힘입어 매출이 소폭 증가했지만, 환율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과 오프라인 시장 경쟁 심화로 영업이익은 6% 이상 감소했다.

반면 동원푸드드는 식자재·축산물 유통과 조미식품 사업 전반에서 성장세를 나타냈다. 신규 거래처 확대와 기업 간 거래(B2B) 수요 증가가 실적 개선을 견인했다.

포장·소재 계열사 동원시스템즈는 연포장재와 식품캔 등 고부가 제품 중심의 수출 확대에 힘입어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했다.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33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30억 원으로 3.9% 늘었다.

물류 계열사 동원로엑스와 동원건설산업도 신규 물량 확보와 공사 수주 확대에 힘입어 매출과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운송 효율화와 우량 사업지 중심의 선별 수주 전략이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불안, 내수 침체 등 어려운 경영 환경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산·식품·소재·물류를 아우르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과 내실 경영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CJ CGV, 특별관·해외사업 '양날개'... 실적 개선 본격화

매출 5734억, 영업이익 87억

CJ CGV가 올해 1분기 국내 영화시장 회복과 글로벌 사업 성장에 힘입어 수익성을 끌어올렸다. SCREENX·4DX 등 특별관 사업 확대와 해외 법인의 실적 개선이 실적 반등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CJ CGV는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5734억 원, 영업이익 8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98억 원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5억 원 개선됐다.

실적 개선에는 영화 '왕과 사는 남

자' 흥행에 따른 국내 관람객 증가와 함께 CJ 4DPLEX, CJ올리브네트웍스의 성장세가 영향을 미쳤다.

CJ 4DPLEX는 글로벌 SCREENX·4DX 특별관 확대와 '아바타: 불과재' 등 콘텐츠 흥행 효과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289억 원을 기록했다. 공연 실황 기반 오리지널 콘텐츠 사업도 성장세를 보이며 영업 손실 규모를 줄였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AI 전환(AI) 사업 확대와 전자결제대행(PG), 기프트카드 플랫폼 성장에 힘입어 매출 2118억 원, 영업이익 113억 원을 기

록했다. 비용 효율화 작업도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다.

해외 극장 사업도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베트남 법인은 매출 788억 원, 영업이익 118억 원으로 안정적인 흑자 구조를 유지했고, 인도네시아는 매출이 8.1% 증가하며 적자 폭을 축소했다.

국내 극장 사업은 영화 흥행 효과로 실적 반등 조짐을 나타냈다. 1분기 국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7% 증가한 1754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손실 규모도 크게 축소됐다. 특히 3월에는 월 기준 흑자를 달성했다.

CJ CGV는 2분기 이후에도 특별관

콘텐츠 확대와 기대작 개봉 효과를 통해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슈퍼 마리오 갤럭시', '마이클' 등 글로벌 콘텐츠 라인업 강화와 함께 SCREENX·4DX 인프라 확장에 나설 예정이다.

국내 시장에서는 정부 영화관람할인 정책과 함께 '군체', '호프' 등 한국 영화 기대작, 하반기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개봉 등이 극장 수요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종민 대표는 "국내외 영화시장 회복과 CJ 4DPLEX, CJ올리브네트웍스의 성장세에 힘입어 수익성이 개선됐다"며 "차별화된 특별관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입지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신제품



현대그린푸드 사찰음식 간편식. /현대그린푸드

현대그린푸드 사찰음식 간편식 5종

도림스님·법승스님 협업

현대그린푸드가 건강식을 찾는 소비자 수요 확대에 맞춰 사찰음식을 간편식(HMR)으로 구현한 신제품을 선보이며 프리미엄 건강식 시장 공략에 나섰다.

현대그린푸드는 공식 온라인몰인 그리팅몰을 통해 사찰음식 간편식 5종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동물성 식재료와 마늘·부추 등 자극적인 향신 채소를 사용하지 않고, 무·표고버섯·다시마 등 자연 재료를 활용해 담백하고 깔끔한 풍미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부산 보덕사의 도림스님과 대전 영선사의 법승스님 등 사찰음식 전문가들의 조리법을 기반으로 개발해 전통 사찰음식의 맛과 철학을 최대한 살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도림스님과 협업한 제품은 연꽃 열매인 연자를 활용한 '봄동 연자죽'과 채수로 감칠맛을 더한 '취나물 우영잡채' 등 2종이다. 법승스님과 공동 개발한 제품은 '콩가루 썩국', '들기름 나물솔밥', '냉이 두부전 반죽' 등 3종이다.

/신원선 기자